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학 석사 학위논문

정서적·물리적 가정폭력의 발생과
신고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 회 학 과

성 수 진

정서적·물리적 가정폭력의 발생과 신고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

지도교수 이 재 열

이 논문을 사회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 회 학 과
성 수 진

성수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7월

위 원 장 정 진 성 (인)

부위원장 배 은 경 (인)

위 원 이 재 열 (인)

국문 초록

‘가정(家庭)’은 가족이 함께 생활하며 살아가는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이자 개인으로서 임하는 최초의 사회적 환경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친밀하고 안전하다 여겨지는 ‘가정’이라는 문 뒤에서 폭언부터 살인까지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종류의 폭력과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역시 엄연한 사실이다. 그동안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제도적·학문적 노력들이 지속되어 왔지만, 여전히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젠더폭력(Gender Violence)의 한 종류로서 배우자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은 사생활(私生活)적 속성이 짙게 나타나며, 단순 부부싸움으로 여겨져 외부로 쉽게 드러나지 않아 더욱 그 통제가 쉽지 않다. 여성 및 인권단체들의 노력, 형사법적 처벌강화, 경찰력이 집중되는 ‘4대 사회악(社會惡)’에 가정폭력이 포함되는 등 사회적 관심은 높아져왔지만, 가정폭력 발생건수의 유의미한 감소 혹은 국민체감도의 개선 등의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가정폭력의 수단이 신체적 폭행 보다 정서적 폭력이나 경제적 통제 등 교묘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행해져, 형사사법적·제도적 통제가 힘든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가정폭력 행위자의 특성을 밝히고 피해경험과 신고의사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가정폭력 해결을 위한 수단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에 있다. 법·제도적 장치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에 개입된 행위자들이 처한 환경과 경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초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과 피해자의 반응은 가정폭력의 재범 위험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됨에도

초기의 적극적 개입을 어렵게 하는 원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피해자의 신고의사를 저하시키는 과정과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 개입을 어렵게 하는 피해자들의 경험적 측면을 파악해 암수범죄로서의 가정폭력의 속성과 그 구체적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우선 가정폭력을 직접 발생시킨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발생한 가정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신고’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가정폭력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를 꺼려함에 따라 암수(暗數)가 많은 범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신고’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시발점으로서 작동하는 계기가 되므로 사회과학적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을 발생시킨 행위자의 속성과 피해경험과 경찰신고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 유의미하게 작동하는 매개변수를 찾아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그 결과, 부부간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정서적 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컸으며, 가구소득이 적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 신체적 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형별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고의사와 관련하여 배우자폭력의 경우 신체적·물리적, 정서적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과거(최근 1년)에 당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신고의사가 약해진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경험한 가정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신고의사 간의 음(-)의 관계는 일반적 범죄피해와 신고의사와의 관계와는 반대되는 결과로, 가정폭력이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원인으로 파악된다.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신고의사 간의 음(-)의 관계를 설명하는 요인을 찾아보았을 때 물리적 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폭력허용도’, 정서적 폭력의 경우 ‘가정폭력에 대한 인지도’ 변수가 유의미하며, 가정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 신고의사 간의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즉, 물리적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된 피해자일수록

폭력허용도가 높아져 피해자의 신고의사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며, 심각한 정서적 폭력을 당한 피해자일수록 가정폭력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져 신고의사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기존의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의 억제 정책, 피해자 보호 등 사후적 지원정책, 재발방지 정책으로 이어지는 가정폭력 관련 정책에 더하여 초기 가정폭력 발생단계에서의 신고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밝혀졌으며, 구체적으로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자의 경험적 측면을 분석하여 가정폭력의 초기 진화와 효과적 예방정책 정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가정폭력, 피해신고의사, 가정폭력실태조사, 구조방정식

학 번 : 2015-20196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6
제 1 절 선행연구 검토	6
1. 배우자폭력의 발생	6
2. 배우자폭력의 심각성과 경찰신고	7
제 2 절 이론적 배경	10
1. 배우자폭력의 행위자	10
2. 배우자폭력에 대한 대응과 반복피해	15
3. 피해신고	18
제 3 절 분석틀	21
제 3 장 배우자폭력 행위자의 특성	22
제 1 절 연구설계	22
1. 연구모형	22
2. 분석방법 : 로지스틱 회귀분석	23
3. 변수의 구성	23
1) 독립변수 :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3
2) 종속변수 : 배우자폭력의 발생여부	24
3) 통제변수	26
4. 분석자료	26
제 2 절 행위자의 특성과 부부폭력발생 간의 관계	28
제 4 장 배우자폭력의 피해경험과 신고의사	30
제 1 절 연구설계	30
1. 연구모형	30
2. 분석방법 : 구조방정식 모형	32
3. 변수의 구성	32
1) 독립변수 : 배우자폭력의 피해경험	32
2) 종속변수 : 배우자폭력 피해의 일반적 신고의사	34
3) 매개변수	34
(1) 폭력허용도	34
(2) 가정폭력인지도	35

4) 통제변수	36
제 2 절 배우자폭력의 피해경험과 신고의사 간의 관계	37
1. 확인적 요인분석	37
2. 연구모형 검증	38
1) 경로분석(인과분석)	38
2) 매개효과 검증	41
제 5 장 결론	42
참고문헌	46
Abstract	52

표 목 차

[표 1] 여성의 부부폭력 피해를 국제비교	2
[표 2] 가정폭력 피의자의 재범율	3
[표 3] 모형1의 종속변수관련 부부폭력의 유형 재분류표	25
[표 4]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27
[표 5] 연구모형 1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28
[표 6] 모형 2 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38
[표 7] 모형 2 의 경로분석 결과	39
[표 8] 모형 2 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41

그 립 목 차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21
[그림 2] 배우자폭력 행위자의 특성 (모형 1)	22
[그림 3] 피해자의 신고의사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2)	31
[그림 4] 모형 2의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40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가정 내 폭력이 범죄로 규정되고 학문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30여 년 전의 일이다¹⁾. 그 전까지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일이며 외부의 간섭이 불필요한 사항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한국 가정에서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옛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짙은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가정 내 가부장제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남에 따라 가정 내의 폭력을 간과하고 가정폭력을 정당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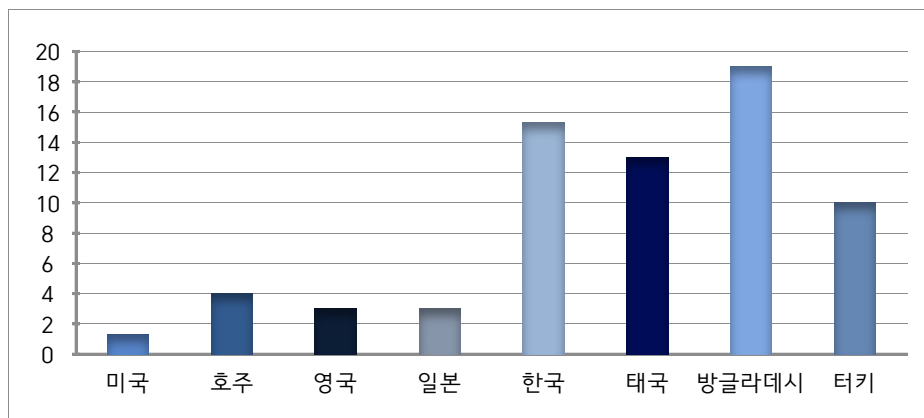
이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의 노력은 1997년 12월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시작됐다.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 사법적 개입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절차가 마련되는 것과 더불어, 2013년 박근혜 전(前) 정부는 가정폭력을 성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과 함께 우리 사회 ‘4대악’에 규정하였고,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가정폭력을 포괄하는 ‘젠더폭력 방지 기본법’ 제정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 및 사법기관의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해결되어야 할 사회구조적 문제로 자리매김 됨으로써, 이제 ‘가정폭력 혹은 배우자폭력’은 일정 정도 해결된 문제 같은 인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다양한 단체·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감한 남녀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경우 우리 가정 속에는 가부장 중심의 남성 우위적 가치관이 잔재하고, 따라서 가정폭력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사회문제이다.

1)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은 1970년대 여성주의 운동의 지속적 노력으로 ‘아내구타(Wife Abuse)·매 맞는 아내(Battered Wives)’ 등의 표현들이 생겨나면서부터 외국에서 먼저 나타났다(Mehrotra, 1999). 이후로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특히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내폭력은 더 이상 집안 개인사가 아닌 국가 혹은 사회공동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일어난 배우자 살인사건의 배경에는 아내폭력이 장기간 반복되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정지역에서는 가정폭력의 발생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과 동시에 그 증가율이 65%에 달하는 시·도 지역도 있었다. 또한 2010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65세 미만 기혼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피해율은 15.3%로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영국이나 일본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여성의 부부폭력 피해율 국제비교²⁾



국가 (조사연도)	미국 (2000)	호주 (2003)	영국 (2007)	일본 (2001)	한국 (2010)	태국 (2000)	방글라데시 (2001)	터키 (2008)
부부폭력 피해율	1.3%	4.0%	3.0%	3.0%	15.3%	13.0 %	19.0%	10.0 %

출처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0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2) 전통적으로 한국과 유사하게 가부장적 문화에 지배되어 왔으며, ‘법률은 가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관행이 존재해왔던 일본 또한 낮은 부부폭력 피해율을 보인다는 점은 간접적으로나마 한국 가정의 부부폭력에 대한 대응이 더디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김수을, 2006; 김상운, 2014). 또한 미국의 가정폭력범죄 현장검거율이 34.9%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에는 각각 8.0%(2013년), 10.5%(2014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김상운, 2014). 연도별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기혼남녀의 정서적 폭력을 포함한 배우자 폭력율은 45.5%로 2007년에 비해 5.2%p 증가하였다.

그러나 별다른 경향성 없이 작은 폭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가정 폭력 발생율과는 달리 한국의 가정폭력의 특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가정폭력사건 피의자의 재범률과 피해신고율이다.

[표 2] 가정폭력 피의자의 재범률

연도	가정폭력 발생건수	재범인원(명)	재범률(%)
2008	13,143	1,045	7.9
2009	12,493	1,315	10.5
2010	7,992	1,619	20.3
2011	7,272	2,395	32.9
2012	9,345	3,011	32.2
2013	18,000	2,129	11.8
2014년 8월	12,299	1,349	11.0

출처 : 김해경, 박찬혁, 정의롭(2015),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효율적 대처방안

위와 같이 2008년에 비해 2012년 재범률은 32.2%로 약 4배 상승했으며, 이후 2013년과 2014년에는 그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경찰의 4대약 정책의 추진으로 가정폭력 검거인원이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볼 때, 재범률이 감소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김해경 외, 2015). 전반적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가정폭력 피의자의 평균 재범률은 18.8%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폭력피해 아내의 신고율은 2.4%(2007년), 8.3%(2010년), 2.1%(2013년)로 2010년도부터 조사에 포함된 부부폭력의 유형이 상이함을 감안하더라도 ICVS(Inter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에 나타난 한국의 일반범죄 신고율(절도 18.2%, 강도 22.2%, 주거침입절도 34.5%) 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 사법적 대응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해지고, 여성의 인권 신장과 더불어 가정폭력에 대한 지원이 증가되는 흐름과 반대되는 방향이다. 즉, ‘아내폭력’이라는 사회적 병폐가 근본적 해결책은 부재한 상태이며 기존의 연구들과 제도적 지원으로 그 지속적·반복적 속성을 지닌 가정폭력이라는 사회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역부족임을 시사 하는 것이다.

즉, ‘가정폭력’이라는 주제는 한국 사회에서만 진부한 주제 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아내폭력’의 직접적 피해자인 여성들과 이로 인해 더 큰 상처를 입게 되는 자녀들을 그 가정 뒤에 숨겨진 폭력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무엇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사회적인 개입수단으로부터 차단시키고 어떻게 가정폭력의 심화와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의 피해경험과 신고의사 사이의 관계와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낮은 신고율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일수록 신고하지 않는 원인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물리적(혹은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은 ‘가정폭력’이라는 범주 하에 같이 분류됨에도 나타나는 폭력의 행태는 근본적으로 다르기에 양자를 별도의 독립변수로 구성하고, 피해자의 일반적 신고의사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고 피해자의 인식적 흐름을 추적해가기 위해 신고의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매개변수로 신체적 폭력과 관련해서는 ‘폭력허용도’ 변수를 정서적 폭력과 관련해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지도’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어떤 요인이 피해자의 신고의사를 약화시키는지를 밝혀내어 가정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암수(暗數) 범죄화 되는 폭력의 순환구조(circle of violence)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한 2013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호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2)」라는 법 규정에 의거하여 여성가족부의 연구 용역의뢰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로 2004년 이래 3년 마다 이루어졌다. 가정폭력실태조사는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와 취약계층 및 소수집단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조사로 구성되는데, 연구주제와 목적에 맞게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발생현황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국가정폭력 실태조사로 분석 자료의 범위를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정폭력은 폭력을 행하는 주체와 객체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아내와 남편에 대한 폭력을 포함하는 개념인 부부폭력(혹은 배우자폭력), 자녀폭력, 노인(혹은 노부모)폭력으로 구분된다(연세대학교복지대학원, 2010). 분류된 유형 중 부부폭력의 경우는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관계 형성과 양육역량에 대해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폭력을 경험한 부모는 자녀들에 대하여 권위와 통제력을 상실하며, 가정폭력이 빈번한 가정에서 자란 아동들은 행동장애를 표출하거나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등 부부폭력의 경우 그 심각성 및 사회 전반에 대한 영향력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각 유형별 폭력의 성질이 이질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연구대상을 ‘배우자간 폭력’으로 한정하였다. 물론 아내폭력을 제외한 가족원폭력 또한 그 심각성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배우자 간 폭력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제도의 속성이 가장 짙게 나타나는 가정내의 폭력이며, 부부 간의 ‘친밀감’이라는 속성으로 말미암아 외부로 노출되기 어려운 가정폭력이기에 행위자들의 특성을 밝히고 피해자의 인식적 측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부부폭력의 발생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어떠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진 대상자가 유형별 가정폭력의 가해를 할 가능성이 더 높은지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아내폭력피해의 신고에 초점을 맞추어 유형별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피해자의 신고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뒤,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이 피해자의 신고의사에 유의미하게 관여하는지 피해자의 인식적 측면과 관련한 매개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제 1 절 선행연구 검토

1. 배우자폭력의 발생

기존의 배우자폭력의 발생에 관한 이론들은 가정폭력 전체의 다층적이고 복잡한 속성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Hunnicut, 2009)이 지속되자 대인적, 사회적 차원의 통합적 이론 구축을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Gelles와 Stratus(1979)는 가정폭력의 가해자의 병리적인 속성 외에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의 논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관한 15개의 이론들을 비교·분석하여 가정폭력을 설명하는 다층적이고 통합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통합적 모델을 기반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더욱 활발해졌는데, Belsky(1980)는 대인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환경을 연결시키는 생태이론(Ecological Theory)으로 가정 내의 폭력을 미시적 단계인 가정 내의 상호작용 과 사회적 유대 그리고 거시적인 사회구조·문화와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Gelles(1993)는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가정폭력이 연구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가정 폭력의 정의부터 속성, 기존 이론들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가정폭력에도 비용/편익의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그 사생활적 속성과 문화적인 용인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선행연구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측면이나 이론적 논의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며, 이 보다 경찰의 대응실태와 개선, 가정폭력 개입에 대한 형사·사법적 근거와 같이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김병준, 2002; 윤형관, 2004; 김재민, 2013; 조은경&허선주, 2013). 구체적으로 배우자폭력의 발생과 관련한 실증적 연구에서는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들의 경우, 전업주부 등 미취업 상태의 여성들보다

남편으로부터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방임, 통제의 피해를 보다 많이 경험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는 아내들이 어느 특정 인구 집단으로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수준, 그리고 취업중인 여성이 다른 비교집단 보다 배우자이 폭력에 더 취약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2010).

나아가 보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여성주의와 연관되어 연구되더라도 결국은 피해자 보호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장하는데 그쳐 여전히 부부폭력을 표면적으로만 분석하고 사후적 지원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박영란, 2007; 허민숙, 2012).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위 연구들에서 주장하는 부부폭력에 대한 실효적인 법적·제도적 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부부폭력 피해자의 ‘신고’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고려는 그 중요성만큼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내의 부부폭력에 대한 연구는 사회·구조적 접근보다는 결과적이고 세부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 부부폭력에 대한 연구가 부부폭력의 근본적 해결과 향후 정책발향의 설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개인적 속성부터 거시적 사회구조까지의 단계적·통합적 변수설정을 통해 이론적 틀을 구축하고, 나아가 부부폭력의 다면적·복합적 속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떠한 요인이 부부폭력 피해자들의 피해신고를 저해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일차적으로 부부폭력의 발생과 심각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속성들을 파악한 뒤, 유형별 부부폭력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일반적 신고의사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양자간의 관계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제공하는 매개변수를 파악하여 부부폭력에 대해 보다 통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2. 배우자폭력의 심각성과 경찰신고

배우자폭력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범죄피해의 심각성은 범죄의 특성과 관련된 신고 결정요인 중 가장 대표적 변수라고 할 수 있다(노성훈,

2012). 국내 범죄피해조사의 범죄피해 심각성지표를 활용한 실증적 연구에서는 피해액이 클수록 절도사건의 피해신고확률이 증가한다고 설명하였다(강지현, 2015; 탁종연, 2010). 나아가 범죄피해의 심각성과 신고율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합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비용-편익이론(Cost-Benefit theory)은 피해신고 또한 피해자의 경제적 계산에 의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고 해석한다(Skogan, 1984). 다시 말해 피해자가 인식하는 범죄피해 신고로 인해 수반되는 비용보다 그로 인해 얻게 되는 편익이 크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신고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비용-편익이론에 입각하면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서적 피해정도가 크고, 피해에 대한 보상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가능성이 클수록 피해신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폭력과 경찰신고에 관련해서는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와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신고 가능성에 대해 다소 비일관적인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 몇몇의 연구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거인이거나 가족구성원일 때 경찰신고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도출한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피해신고와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고 나타났다. Berk 등(1984)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과거에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거나, 유사한 사건으로 신고한 경험이 있거나, 자녀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폭력사건을 목격하면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피해의 심각성은 피해자의 신고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일반적 범죄에서는 범죄피해의 신고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범죄피해의 심각성에 해당하는 변수가 배우자폭력의 경우에 유의미하지 않거나 상반된 연구결과가 도출되는 원인은 부부폭력을 비롯한 가정폭력의 복합적 속성일 것이다. 즉 일반적 범죄에 비해 배우자 폭력의 피해신고 결정이 저해요인과 촉진요인 모두의 영향을 받는 보다 복잡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정 범죄의 신고율이 다른 범죄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은 피해자들이 그 범죄피해 자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신고 후에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겪을 수 있는 2차적 피해를 두려워 하기 때문인데 이에 가정폭력의 경우 그 사생활적 속성, 본인의 배우자라는 친밀감의 정도 나아가 이는 부부 간 양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판단이 더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부부폭력의 피해자들의 범죄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에서 신고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된 요인들인 부부폭력 피해의 심각성, 피해자의 폭력과 가정폭력에 관한 인식적 측면,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에 포함하여 이들 요인이 배우자간 폭력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부부폭력 피해의 범죄신고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과는 달리 피해자의 인식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정책의 방향 설정과 배우자간 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적 접근에 기여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세부적으로 부부폭력을 포함하여 가정폭력의 경우 가족구성원이라는 고정된 대상에게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형해로 행해지고, 관습적으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묵인되어 사회적 개입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심각성의 측정 또한 이의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Harries와 Kovandzic(1999)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측정하기 위해 지속성(persistence)과 가정폭력의 강도(intensity)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5년간 발티모어 도시의 가정폭력 심각성을 분석하였다. 김재엽(2007)은 심각성을 지속성과 반복성으로 세분화하여 파악하였다, 많은 질적 연구들과 사례에서 뒷받침 되듯이 아내폭력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지속성과 강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아내폭력의 심각성 변수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조은경&허선주, 2013).

가정폭력의 심각한 정도는 Straus(1979)에 의해 개발된 상해 가능성과 그 강도에 따라 가정폭력의 수준을 총 8가지 등급으로 분류한 CTS 척도3)가 가장 활발히 사용되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간과했다는 한계를 인식하여 Lehrman(1996)은 가정폭력의 범위에 심리적·정신적 학대를 포함한 분류를 개발하였다. 이외에도 Hudson과 McIntosh(1981) 직접적으로 심각성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신체적, 비신

3) CTS(Conflict Tactics Scale)는 Straus(1979)에 의해 개발된 갈등관리행동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척도로서 폭력 또는 구타를 측정하는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가 분류한 가정폭력의 심각성의 수준은 다음과 같다. 물건을 던지는 행위-떠밀거나 움켜잡는 행위-뺨을 때리는 행위-발로 차거나 물어뜯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물건으로 때리거나 때린다고 위협하는 행위-계속 무차별로 때리는 행위-칼이나 망치, 도끼, 총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칼이나 망치, 도끼, 총 등을 실제로 사용하여 구타하는 행위

체적 폭력으로 분류하여 배우자폭력의 유형을 측정하는 척도를 제시하였다.

제 2 절 이론적 배경

1. 배우자폭력의 행위자

1960년대 이후 여성 혹은 아동의 인권의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인권운동이 활발해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제고되면서 그동안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였던 ‘아내구타(Wife Abuse)’ 혹은 ‘매 맞는 아내(Battered Wives)’ 등의 문제는 학계에서 또한 이슈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부부폭력을 비롯한 가정폭력의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정폭력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들이 이루어져 왔다.

가정폭력의 발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초기 연구는 먼저 행위자의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정신의학적 접근방식(Psychological theory)으로 시작되었으며, 이에 더해 개인을 둘러싼 사회와 문화에서 발생원인을 찾는 사회심리학적 접근(Social-Psychological theory)과 사회문화적 접근(Sociocultural theory)이 이루어졌다(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2010).

1) 정신의학적 접근

정신의학적 이론(Psychological theory)은 가정폭력의 발생에 있어 행위자의 생물학적 혹은 기질적 요소, 병리학적 요소, 알코올 사용 등을 그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실증적인 자료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데, Maffli와 Zumbrunn(2003)은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을 분석한 결과 사건발생 당시에 행위자의 33%가 음주상태였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신의학적 이론에서 제시하는 음주와 폭력행위와의 관련성 외에도 가정폭력 행위자들에서는 성역할에 대한 태도에 있어 가부장적이며 남성 우월적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폭력에 대해 보다 허용적이고 관대

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폭력 행위자들이 지닌 가부장적 신념은 아내에 대한 소유의식을 지니고 높은 통제력을 행사하고자 하며 아내가 규범을 어기거나 가정 내에서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가장으로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로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한다(심영희, 김혜선, 2001).

이렇듯 정신의학적 이론을 비롯하여 가정폭력 가해자의 병리적 특성과 인식적 측면에 초점을 둘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들의 공통적 속성을 밝히기에 용이하고 이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사후적 대응에 그칠 위험이 있으며 더욱 복잡·다양화되는 사회에서 다양한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중 단편적 측면에서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2) 사회심리학적 접근

사회심리학적 이론(Social-Psychological theory)은 개인의 내적인 특성에 초점을 두는 전(前) 이론과는 달리 사회와의 사회 작용과 같은 개인의 사회적 경험에서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을 찾고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먼저, 사회심리학적 요인 중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은 폭력행동도 다른 일반적 행동과 마찬가지로 주변 환경을 통해 관찰하고 배운 학습의 산물로 보는 관점이다(Bandura, 1979). 인간의 1차적 사회 환경인 가정 안에서 부모나 의미 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가 ‘폭력’ 행동을 통해 스트레스나 좌절된 욕구를 해결하는 것을 보고 성장한 아동의 경우 폭력이 정당화된 수단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수단으로서 학습되기 때문에 성인기에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김재엽 등, 2007). 실제로 한국의 가정폭력 행위자의 80%가 성장기의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하였으며, Kaufman과 Zigler(1989)의 연구에서 또한 자녀를 학대한 가해자의 30%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둘째, 자원이론(Resource theory)은 폭력 또한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되어 자원이 결여되어 있거나 원하는 반응을 얻는데 실패한 개인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고 보는 관점으로 Gelles(1993)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경우 폭력이 빈도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연세대사회복지대학원, 2010). 또한 개인이 가지는 자원이 많을수록 힘을 사용하는 빈도는 줄어들 것이라고 하면서 폭력은 다른 자원이 부족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보았다(연세대사회복지대학원, 2010).

셋째, 갈등이론(Conflict theory)은 집단의 규모나 구성원 간의 친밀도와는 관계없이 지배와 복종으로 특징 지워지는 모든 집단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입장이다(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2010). 즉,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자원과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갈등이 야기되는 것으로 성별이나 세대가 다른 이질적인 집합체인 가족 내에서 구성원간의 권력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불가피하게 갈등과 폭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관점이다(Straus, 2005). 그러나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관리할만한 다른 대안이 없거나 좌절됐을 때 폭력적인 수단이 사용되는 것을 가정폭력으로 이해할 경우 가정폭력의 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높일 수 있지만, 일반 폭력과 차별화된 접근을 위해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경우와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갈등과의 차이점과 이에 기반한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은 대인관계에서 보상과 손실에 초점을 두어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한다(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2010). 즉 사람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공평(fairness)의 원리를 찾게 되는데 자신이 투자한 비용에 비해 보상이 적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 폭력으로 연결되게 된다는 것이다(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2010). Gelles(1993)는 상호관계적 보상과 교환의 중단의 개념을 통해 폭력이 지속되고 중단되는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가정폭력 가해자가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분노의 발산, 권력 획득, 통제 등의 보상이 손실보다 클 때 배우자간 폭력이 지속되며, 그 결과 형사상의 제재 또는 이혼과 같은 손실이 생길 경우 부부폭력이 중단될 것이라 예측하였다. 사회교환이론에 따르면 부부폭력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재범률이 높아지는 원인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이 확대되고 여러 범·제도적 정비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해자가 폭력을 행함으로서 얻게 되는 보상이 더 크기 때문

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최초의 가정폭력 사건을 통해 배우자에 대한 지배욕구와 통제욕구가 충족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닌 취약성이 드러난다면 과거의 경험은 다음 가정폭력의 발생을 위험성을 높이는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노성훈, 2016). 이처럼 사회교환이론의 접근은 부부폭력의 반복·지속성을 설명하기에는 용이하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이 확대되고 여러 법적·제도적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재범률 증가 등 여전히 그 심각성이 해소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피해사실의 인지와 효과적 처리로 가해자에 대한 손실의 크기를 키워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간접적으로나마 배우자폭력에 대한 공식적 기관들의 개입과 부부폭력 피해자의 경찰 및 관련기관 신고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3) 사회문화적 접근

사회문화적 이론(Sociocultural theory)은 가정과 그 구성원을 둘러싼 사회적 가치나 구조, 규범, 제도 등의 사회적 조건에서 가정폭력의 발생 원인을 모색하고, 이를 거시적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접근방식이다. 대표적 사회문화적 이론으로는 구조적 이론(Structural theory), 문화적 이론(Cultural theory), 그리고 페미니스트 이론(Feminist theory) 등이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구조적 이론(Structural theory)은 빈곤층 혹은 인구밀집지역 등과 같은 열악한 사회구조환경에서 부부폭력의 발생 원인을 찾는데, 이에 대해 다수의 실증연구들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존재한다. 미국 시카고학파의 ‘사회해체이론’(Shaw & Mckay, 1942)에 따라 구성된 실업률, 중위소득 수준 등 빈곤지표, 지역사회의 평균 교육수준, 한부모가정 비율, 소수인종 비율 등의 요인들은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2010). 반면, 가정폭력 재피해 위험성은 지역사회 소득수준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폭력 등 가정폭력의 경우 일반적 폭력과 달리 이에 취약한 집단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연구도 존재한다(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2010).

문화적 이론(Cultural theory)은 가정폭력이 사회구조 내에 고르게 분

포되지 않고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적 분포를 보이는 것은 폭력에 관한 문화적 규범 및 가치의 기능 때문이라고 설명한다(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2010). 즉 박탈감과 스트레스를 강하게 느끼거나 갈등을 해결할 자원이 부족한 가족에서 보다 오히려 사회화 실천 과정에서 폭력 문화에 젖어 있거나 하위문화에 속하는 가족에게서 가정폭력이 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페미니스트 이론(Feminist theory)은 성(gender)과 힘(power)에 초점을 두고 가정폭력을 설명한다(Yllo, 2005). 이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단순히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에서 폭력으로 사용되는 것만이 아니라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이데올로기 내에서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한다(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2010). 이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를 비롯한 유교문화권 국가들의 높은 가정폭력 발생율과 상대적으로 온정주의적 처벌강도, 낮은 신고율을 설명하기에 용이한 이론이다. 다시 말해, 남성에 의한 여성의 폭력은 결코 개인적이거나 가정적인 문제가 아니며 이것은 역사적·문화적으로 존재해온 남성 지배구조의 발편이며 정치적 문제로 여겨지는 것이다(Dobash & Dobash, 1979).

그러나 가부장제와 여성 주의적 관점의 배우자폭력에 대한 접근방법에 대해 Michalski(2004)의 주장처럼 가부장제와 같은 사회문화 요소에만 치중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배우자간의 대인적 속성과 사회적 속성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Hunnicutt(2009)는 가정폭력과 ‘가부장제’의 문화가 연관이 많음에도 그 복잡한 속성으로 인해 이론 구성에 어려움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가정폭력의 독립변수로서 ‘가부장제’에 제시된 비판을 뒤집고 ‘통제, 성별, 힘’이라는 세부적 척도를 개발하여 가정폭력 이론에 ‘가부장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부장적 문화는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핵심개념으로 특히 한국에서는 유교적 전통으로 인해 한국가정에서 남성 우위적 사고는 더 짙게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의 가부장적 태도, 성역할에 대한 인식과 가정폭력의 발생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 행위자의 상대방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식적 측면에 대한 연구와 이와 연결되는 그들의 피해신고의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가부장적 태도의 경

우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우에도 지닐 수 있음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의 발생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신고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대응 측면에 초점을 두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2. 배우자폭력에 대한 대응과 반복피해

다음으로 배우자폭력 피해여성들이 폭력 행위자에 대응하는 방식은 무조건 참거나 잘못했다고 비는 등의 소극적 대응과 이웃이나 가족들에게 피해를 털어놓거나 경찰, 쉼터, 상담소 등의 사회적 지원체계에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 폭력관계를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떠나는 등의 적극적 대응으로 구분된다(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2010). 피해여성들의 소극적 대응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먼저, 학습된 무기력 이론(Learned Helplessness Theory)이 있다. Walker(1977)는 여성들이 남편의 폭력을 제어할 수 없고 폭력으로부터 벗어날만한 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게 되면서 점차 무기력한 피해자가 되어 폭력에 대응하려는 동기와 시도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교육수준이 낮거나 경제력이 없고 돌보아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신의 상황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이고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거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이 부족했을 당시의 피해자들이 부부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초기의 원인을 설명하는데는 유용하였으나,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사회적·법적 자원이 구비되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된 환경에서는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Heskwiskwig & Klesges, 2002).

피해여성 지원체계가 본격적으로 구비되기 시작한 1980년대에 이르러서 Gondolf(1988)는 생존자이론(Survival Theory)을 통해 구타당하는 여성들이 폭력에 무기력한 희생자가 아니라 폭력종식을 위하여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과 끊임없이 접촉을 시도한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미국의 3,665명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국 조사(Wauchope, 1988)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들의 약 70%가 공식적 지원 체계 혹은 비공식적 지지망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쉼터를 찾은 여성

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Gondolf & Fisher, 1988)에서는 이들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쉼터에 입소하기 전에 평균 6번 정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설명을 한국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의 조사결과 2013년 부부폭력 피해 아내의 경찰 신고율은 2.1%로 2004년 대비 9.7%p 감소하였으며,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공식적 지원체계인 여성긴급전화(1366), 쉼터 및 가정폭력상담소의 이용 또한 전자의 경우 0.4%에 불과하고 후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2013년 가정폭력실태조사에도 본인 혹은 이웃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의 경찰신고의사를 묻는 가정(假定)적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5% 가량은 ‘가족이므로(57.4%)’ 혹은 ‘남의 일이므로(55.8%)’를 원인으로 들으며 신고하지 않겠다고 응답함으로써 여전히 가정폭력을 사적인 문제로 인식함과 동시에 지극히 가정폭력 상황에 대해 소극적 대응으로만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의 배우자폭력 피해자들의 소극적 대응을 설명하기 위한 대안적 이론들이 요구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Klinger(1995)는 77개의 사례를 분석하여 배우자간 폭력과 일반 폭력을 비교하고 배우자간 폭력이 신고율이 떨어진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배우자폭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게 대처한다는 Leniency Principle(온정적 법칙)을 제안하였다.

Klinger의 연구는 실증적 분석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2013년 폭력피해 아내의 실제 경찰신고율은 2.1%로 일반적 범죄피해의 신고율에 비해 현저히 낮음과 동시에 본인의 가정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신고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전체 응답자의 45% 중 미신고이유에 대해 ‘가족이므로’와 ‘대화로 해결하기를 원해서’라는 감정적 요인을 선택한 응답자가 각각 57.4%, 2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Lally 와 DeMaris(2012)는 관계적 거리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관계적 거리가 멀수록 가정폭력의 신고 횟수가 증가한다는 Black(1971)의 주장을 양적 연구방법으로 검증하였다.

실제 아내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66.4%가 폭력의 현장에 ‘그냥 있었다’라

고 대답했으며 그 중 73.3%가 ‘그 순간만 넘기면 괜찮고 가족이기 때문에’라고 대답했다. 이 때, 낮은 신고율은 당시 발생한 폭력에 대한 제도적 개입을 어렵게 하여 피해자를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하지 못하게 한다. 동시에 장기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들 사이의 일정한 패턴이나 주기를 발견한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나 현재에 배우자에 대해 폭력이 행사한 적이 있는 남편은 장래에도 그럴 위험이 높고 피해는 더 심각해지는 것(조은경&허선주, 2013)으로 나타난 만큼 더 이상 낮은 부부폭력 피해 신고율의 문제를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나아가 폭력이 있었을 당시 혹은 그 후에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가족 구성원의 발생한 폭력에 대한 대응은 재피해(Revictimization) 또는 반복 피해(repeat)⁴⁾의 가능성과 직결된다. 반복피해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사건 의존적 이론(Event-dependent theory)와 위험이질성 이론(Risk Heterogeneity Theory)의 두 가지 논리적 설명이 존재한다(노성훈, 2016). 전자의 경우 앞으로 벌어진 범죄 사건의 발생가능성은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건에 의해 달라진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경미하다 하더라도 초기의 가정폭력 행위에 대한 소극적 대응에 그치는 경우 피해자의 범죄취약성이 확인되고 이러한 경험은 더 심각하거나 고질적인 폭력의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높이게 되는 것이다. 실증적으로 가정폭력의 반복피해 경향은 수많은 연구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노성훈, 2016)⁵⁾.

한편 위험이질성 이론에 따르면 반복피해가 나타나는 원인은 피해자 혹은 범행 대상의 범죄 취약적 특성에서 기인하게 되는 것인데(Johnson & Bowers, 2004; Tseloni & Pease, 2003)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가해자에 비해 뚜렷한 집단적 특성이 드러나지 않을뿐더러 피해자에게서 가정폭력의 발생의 원인을 찾으려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⁶⁾.

4) 정확히는 “한번의 범죄피해 이후 즉시 다음 범죄피해가 재차 발생하는 비율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 보다 훨씬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Skogan, 1999)

5) Berrios와 Grady(1991)의 연구에 의하면 병원 응급실을 찾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86%가 과거 한번 이상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40%는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노성훈, 2016)

6) 실제로 위험이질성 이론에서는 가정폭력 재피해의 원인을 개인적, 관계적 수준의 위

끝으로 가정폭력의 반복피해의 원인에 더해 가정폭력의 반복피해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적 논의는 ‘폭력의 순환(circle of violence)’논리이다(Walker,1984). Walker(1984)는 가정폭력은 긴장의 형성, 폭력의 발생, 그리고 가해자의 사과 및 화해로 전개되는 순환적 단계를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노성훈, 2016). 또한 초기의 가정폭력 사건으로 피해자가 회피적 행동을 보이거나 폭력 행위자에게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가정 내의 갈등이 증폭되고 또다른 가정폭력 피해를 받게된다는 설명 또한 존재한다(Kuijpers, van der Knaa & Winkel, 2012). 결국 어떠한 이론적 설명을 적용하더라도 초기의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의 반응과 대응이 가정폭력의 재피해 가능성과 피해의 심화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며, 가정폭력 피해의 신고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3. 피해신고

범죄피해자의 범죄신고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으로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과 규범적 관점(Normative Prescription), 그리고 Black의 이론 등이 대표적이다(탁종연, 2010)⁷⁾.

초기의 연구에서는 피해자가 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비용과 편익을

험요인에서 기인한 가정폭력의 취약성에서 찾는다(노성훈, 2016).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높이는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저학력·저소득의 젊은 흑인(미국의 경우) 여성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며, 어린 시절의 학대경험, 부모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험 등은 가정폭력피해의 위험을 높이는 발달과정적 특징으로 나타난다(노성훈, 2016). 심리적·행동적 특징에는 아동기 행동장애 및 반사회적 성격장애, 우울증, 자살시도 경력, 음주 및 마약복용 등이 포함되고, 관계적 특징으로는 결혼관계가 아닌 동거관계, 미혼·이혼·별거 상태, 상호 친밀감 결여 등이 피해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apaldi et al., 2012).

7) 범죄피해신고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관련하여, Goudriaan et al.(2005)는 범죄신고 결정 모형을 경제학적 모형, 심리학적 모형, 사회학적 모형, 사회행태적 모형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 같은 분류는 앞서 설명한 3가지의 대표적인 범죄피해 신고결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체계적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경제학적 모형과 사회학적 모형은 각각 비용편익분석 이론과 범행동이론에 해당한다. 이에 더해 심리학적 모형은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회적 네트워크가 신고 여부를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는 이론이다.

계산하여 신고여부를 결정하고 범죄 및 피해자의 특성과 같은 미시적 수준의 상황조건이 신고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제학적 논리에 입각한 이론적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Skogan, 1984; 송윤아, 2014). 앞선 합리적 관점에 입각한 이론적 설명과 달리, 이후의 논의에서는 피해자가 비용편익계산 뿐만 아니라 규범적 판단에 의거하여 신고여부를 결정하며, 범죄 자체와 피해자의 특성 뿐 아니라 보다 거시적 수준의 사회적 맥락이 피해 신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규범적 관점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Goudriaan, 2006)⁸⁾. 다시 말해 규범적 관점의 논의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신념이나 규범, 믿음이 피해사실의 신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먼저 비용편익분석에서는 피해액이나 신체피해의 결과가 클수록, 피해보상의 가능성이 클수록 해당 사건을 피해자가 형사사법 기관에 신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부부폭력의 발생과 피해신고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 부부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배우자라는 감정적 요인이 피해신고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정서적 폭력이나 통제와 같은 경우 그 피해의 정도를 계산하기 어려울뿐더러 다른 요인들과 상관없이 본인의 남편이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혹은 배우자가 처벌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자녀 및 다른 가족 구성원을 고려했을 때 피해신고의사가 좌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규범적 관점에서는 피해자가 처한 사회적 환경이 요구하는 규범적 맥락에 따라 피해사실 신고여부가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피해자의 규범적 관점이나 신념 등에 따른 범죄피해의 신고결정은 신고로 인한 이익과 비용을 계산한 비용편익분석의 결과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도난 피해의 경우 경찰신고에 앞서 먼저 카드사에 도난신고와 사용정지를 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고 효과적이며

8) 앞서 논의한 규범적 관점의 이론적 논의는 범죄피해자의 신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의 분류에서는 사회생태학적 모형(socio-ecological model)의 하위범주로 속하기도 한다. Goudriaan et al.(2004)은 범죄피해의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 가지 집합수준으로 분류하였는데, 미시적 수준에서는 가해자의 인지여부, 보복위험, 부상정도, 피해액, 경찰접근수단, 보상가능성, 경찰반응인식, 가·피해자관계, 수치심, 죄책감. 등이 있다(송윤아, 2014). 이에 더해 중시적 수준의 사회적 맥락으로는 이웃 또는 지역사회 규범 등이 있으며, 거시적 수준의 사회적 맥락으로는 국가의 구조적 또는 생태학적 특성이 있다.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기 보다는 선생님이나 학교직원 등 관리자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회일반의 인식, 그리고 아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사건은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야 한다고 여기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나아가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도 다른 규범적 기준이 작동할 수 있지만, 가족 구성원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특성 또한 범죄피해의 신고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다수의 연구에서 지목되고 있는 ‘비공식적 사회통제’⁹⁾가 작동할 경우, 지역사회는 피해자 대신 범죄피해를 신고하거나 신고를 도와줌으로써 피해자의 신고비용 및 편익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송윤아, 2014). 또한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개인의 경찰력과 같은 공식적인 사회통제 메커니즘에 대한 접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송윤아, 2014). 이는 사회해체이론의 맥락에서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약한 지역사회에 속한 주민일수록 신고할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약한 지역의 경우, 다양한 공적서비스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때에 주민들은 경찰이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고나 불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경찰신고를 꺼려한다는 것이다(송윤아, 2014)

배우자폭력을 비롯한 가정폭력의 피해자의 경우 폭력 피해 당시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느껴졌을 때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대상은 경찰과 1366긴급전화, 가정폭력 상담소나 피해자 쉼터 보다는 주변 친척 및 바로 옆의 이웃일 것이다. 그러나 국내 피해자들의 폭력상황 후의 대응에 대한 응답에서 공식적 기관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에 알린다고 응답한 비율도 극히 낮게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를 통해 여전히 가부장적 문화와 규범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한 가정 내의 일이라고 여기는 사생활적 속성이라는 인식이 피해자의 규범적 측면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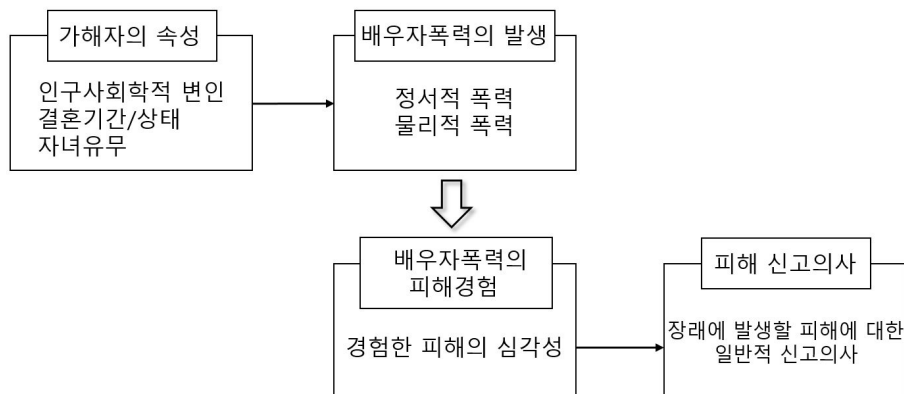
9) 다수의 연구는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통제와 유대, 경찰에 대한 신뢰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주민들의 범죄피해 신고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하였다(Baumer, 2002; Goudriaan et al., 2005).

끝으로 1976년에 발표한 도널드 블랙의 법행동 이론 또한 피해사실 신고결정을 위한 이론적 논의로서 선행연구에서 많이 활용되었는데, 이 이론에서는 법(法)을 양적으로 변화하는 함수로 이해하고 법의 사용량이 개인의 계층과 사회적 거리, 문화, 조직화, 그리고 사회통제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정의한다(Black, 1976). 법은 자동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법이 사용되거나 혹은 동원되어야 하는 것인데 법을 동원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경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Black, 1976)

이러한 논의는 법을 동원하기에는 제약이 많은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의 여성 등)이 왜 다른 피해자들에 비해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하는지를 밝히는 데 유용하지만 법행동이론은 범죄 피해의 심각성과 범죄의 종류, 경찰에 대한 신뢰도 등 피해자의 범죄피해사실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제대로 포섭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피해자의 신고결정을 위한 앞선 3가지 이론 중 법행동 이론에 의존하기 보다는 실증적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유의미한 변수들에 주목하거나 비용-편익분석과 규범적 관점을 이론적 근거로 활용하는 선행연구들이 있다(Baumer & Lauritson, 2010).

제 3 절 분석틀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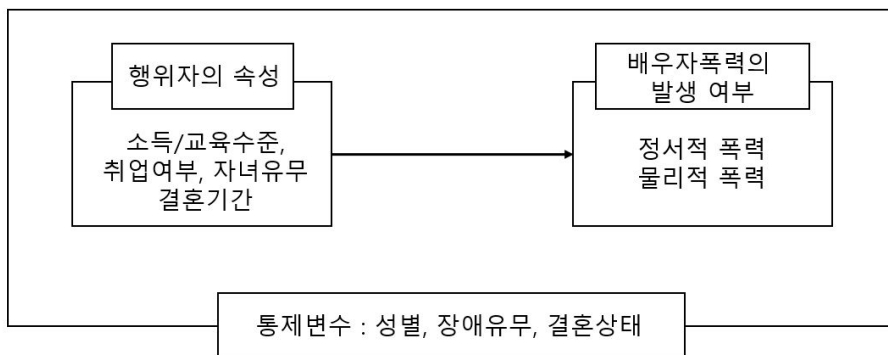
본 연구의 분석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우선 전체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발생’과 관련하여 가정폭력 가해(加害)의 위험성을 높이는 행위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다음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피해신고’ 측면에서 조사대상자들의 가정폭력 피해신고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제 3 장 배우자폭력행위자의 특성

제 1 절 연구설계

1. 연구모형

[그림 2] 배우자폭력 행위자의 특성 (모형 1)



첫 번째 연구모형의 목적은 가정폭력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적 접근 중 가정폭력의 발생 원인이 개인적·관계적 수준의 위험요인들에서 기인한다는 ‘위험이질성 이론’에 입각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위험성과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2. 분석방법: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연구모형 1의 경우 종속변수가 이분형 변수(dichotomous variable)이므로 분석방법으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기존의 연구관행에 따라 0.05(two-tailed)로 설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SPSS 21.0 이었다.

3. 변수의 구성

1) 독립변수 :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소득수준, 학력수준, 결혼기간, 취업여부, 그리고 18세미만 자녀유무이다. 독립변수와 관련하여 다수의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에서 유의미한 변수로 분석된 ‘소득수준’과 ‘학력수준’을 포함시켰으며, 2013년 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부폭력의 피해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폭력이 시작된 시기에 대한 물음에 84.2%가 ‘결혼 후 5년 미만’이라고 답한 만큼 ‘결혼기간’이 유형별 가정폭력의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원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가지는 자원이 많을수록 폭력 혹은 힘을 사용하는 빈도는 줄어들 것이라 예측되는데, 이때 행위자의 ‘취업여부’가 자원으로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변수에 포함시켰다.

끝으로 가족을 목적 추구와 적응의 사회체계로 보며 가정폭력을 체계의 산물로 여기는 가족체계이론(Family system theory)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자녀의 존재는 폭력 후의 ‘부정적 피드백’으로 작용해 행위자의 폭력 수준이 악화되거나 폭력의 순환고리가 끊기게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 자녀의 존재는 가정 내의 갈등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는 등 가정폭력의 발생과 관련하여 양(+).부(-)적 영향을 동시에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18세 미만 자녀의 유무’ 또한 독립변수로 구성하였다.

2) 종속변수 : 배우자폭력의 발생여부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은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폭력(Violence)에 대한 정의와 부부폭력의 범위에 대해 아직까지 학자들 간의 완전한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지만, 최근 가정폭력을 피해자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신체적 폭력과 성학대가 포함되는 협의의 개념에서 정서적, 경제적 폭력 방임과 통제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논의의 방향이 수렴되고 있다(Weinstock, 2001)¹⁰⁾.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에서 부부폭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신체적 폭력 이외의 폭력 행태 또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만큼 신체적 폭력, 성학대는 물론 정서적, 경제적 폭력, 통제, 방임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가정폭력의 발생유무’로 나타나는 종속변수의 경우, 광의의 가정폭력의 개념을 한 가지 변수로 묶어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각각의 부부폭력의 세부 유형들 간의 이질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등의 6가지 유형들을 ① 물리적 폭력과 ② 정서적 폭력으로 재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신체적 폭력 중에서도 ‘배우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 ‘배우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등으로 나타나는 ‘중한 폭력’의 경우 ‘없다’라는 대답을 포함하여 응답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게 대하는 행위’ 등의 ‘방임’ 유형의 경우, 형사사법기관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가정폭력 관련 공공서비스가 개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행태이기 때문에 정서적 폭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이분화된 종속변수의 재분류를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10) 유형 중 ‘통제(Control)’는 국내 가정폭력 관련 연구에서 그 필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못해 주목받지 못했지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로 물리적·신체적 폭력과 독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urphy & Cascardi, 1993). 또한 Street와 Arias(2001)는 정서적 폭력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을 위협하는 폭력유형임을 강조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2005)는 11개 국가의 가정폭력 비교조사에서 정서적 폭력을 비중 있게 다룬바 있다(연세대사회복지대학원, 2010).

[표 3] 모형1의 종속변수관련 부부폭력의 유형 재분류표

부부폭력의 유형		부부폭력의 개별행위
신체적 폭력	경한 폭력	배우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배우자의 어깨나 목 등을 짝 움켜쥐는 행위
		손바닥으로 배우자의 뺨이나 신체를 때리는 행위
	중한 폭력	배우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
		칼이나 흉기 등으로 배우자를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배우자를 확대, 몽둥이로 때리는 행위
정서적 폭력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위
		배우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위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경제적 폭력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는 행위
성학대		배우자가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배우자가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방임		배우자를 무시하거나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게 대하는 행위
		배우자가 병원에 가야할 때에 허락을 받도록 하는 행위
통제		배우자의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배우자의 가족(친정식구/본가)와 접촉을 못하게 하는 행위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이야기를 하면 화를 내는 행위
		배우자가 어디 있는지 알려고 하는 행위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의심하는 행위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해당 유형별 폭력의 발생여부는 세부 행위 중 하나라도 행한 경우 해당 유형을 행사한 것(=1)이 되며, 어떤 유형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0)로 종속변수를 구성하였다. 조사 결과 정서적 폭력의 가해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는 48.6%, 물리적 폭력의 가해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는 41.4%로 나타났다.

(2)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부부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서, 독립변수들과도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를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장애유무’는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에 관한 이론적 접근들 중 정신의학적 이론에서 설명하는 행위자의 병리학적·기질적 특성이기에 통제변수로서 구성했다.

또한 갈등이론에 따르면 응답할 당시의 결혼상태와 응답자가 속한 가구의 유형에 따라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요소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적 접근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끝으로 ‘성별’ 또한 통제변수로 구성되었는데, 최근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뿐만 아니라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기에 별도로 부부폭력의 행위자가 남성인 경우를 연구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다. 이상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의 독립변수로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보다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정책적 함의를 줄 수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구성하였다.

4. 분석자료

분석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성가족부 연구용역 의뢰)에 의해 조사된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이용하였다. 해당 설문조사는 가정 내 가정폭력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2010년에 실시된 실태조사 이후 가정폭력의 발생양상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지도·체감도와 같은 응답자의 의식(意識)적 측면의 설문문항들¹¹⁾도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1)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은 크게 ①성역할 및 폭력관련 행동에 대한 인식(26문항) ②가정폭력관련 법인식과 서비스 욕구(23문항) ③자녀와의 관계(29문항) ④배우자와의 관계(64문항) ⑤가족원과의 관계(46문항, 65세 이상의 응답자의 경우 27문항) ⑥일반적 인구통계학적 특성(13문항) 등의 체계로 총 228개의 설문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크게 ①전국 가정폭력 실태 조사와 ②취약계층 및 소수집단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조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 사회 전반의 가정폭력 발생 현황,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 체감도 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된 전자의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만으로 한정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2013년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는 만 19세 이상의 일반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¹²⁾로 가족이 아닌 6인 이상의 가구 및 집단시설과 외국인 가구의 거주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전체 조사 응답자(5000명) 중에서 ‘배우자폭력(부부폭력)’의 발생과 피해신고의사에 대해 분석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혼인상태가 미혼(전체 응답자의 26.2%)인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 당시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동거(사실혼 관계) 중 이라고 응답한 369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정된 조사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표]와 같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성별	남	1670(45.2)	결혼 상태	함께 거주	3058(82.9)
	여	2021(54.8)		분거	74(2.0)
연령	만19~35세미만	318(8.6)		별거	30(0.8)
	만35~50세미만	1374(37.2)		이혼	149(4.0)
	만50~65세미만	1248(33.8)		사별	380(10.3)
	만65세 이상	751(20.4)	결혼 기간	5년미만	282(7.6)
취업 여부	취업	2267(61.4)		6~15년	801(21.7)
	미취업	1425(38.6)		16~25년	880(23.8)
교육 수준	초졸 이하	581(15.7)		26~30년	421(11.4)
	중졸	446(12.1)		31년 이상	1281(34.7)
	고졸	1491(40.4)	가구 소득	없음	64(1.7)
	대졸이상	1173(31.8)		100만원미만	389(10.5)
장애 유무	있음	124(3.4)		100~200만원미만	451(12.2)
	없음	3567(96.6)		200~300만원미만	675(18.3)
자녀 유무	있음	1378(37.3)		300~500만원미만	1541(41.7)
	없음	2314(62.7)		500만원 이상	556(15.1)

12) 구체적으로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 대표성을 가진 500개의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고, 통계청의 조사구역도 및 가구명부를 활용하여 각 표본 조사구로부터 10가구의 표본가구를 추출하여 표본가구 내 만 19세 이상 가구원 중 한 명을 조사하는 원칙으로 진행되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제 2 절 행위자의 특성과 배우자폭력발생 간의 관계

부부폭력의 피해경험과 신고의사 사이의 관계를 분석(모형2)하기에 앞서 부부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더 높은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밝혀내는 것은 폭력의 발생단계부터 심화과정까지의 통합적 접근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부부폭력의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행위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는 부부폭력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연구모형 1에서는 가정폭력의 발생과 관련된 이론 및 선행연구에서 유의미한 변인으로 지목되는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정서적·물리적 폭력의 발생여부를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 연구모형 1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정서적 폭력			물리적 폭력		
		β	S.E.	Exp(β)	β	S.E.	Exp(β)
인구 사회학적 특성	소득수준	-.023	.024	.977	-.086	.024	.918**
	교육수준	.012	.055	1.012	-.136	.051	.873**
	취업여부	-.093	.086	.911	-.330	.082	.719**
	결혼기간	-.014	.004	.986**	.009	.004	1.009**
	자녀유무	-.198	.094	.821**	-.089	.095	.915
통제변수	성별	.049	.081	1.051	.150	.076	1.162**
	장애여부	.702	.240	2.017**	-.506	.196	.603**
	결혼상태	.815	.044	2.259**	-.057	.030	.945
-2 Log 우도		4458.676			4808.162		
Nagelkerke R^2		.201			.047		
Hosmer&Lemeshow w 검정		.330**			.511**		

그 결과, 정서적 폭력의 발생가능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경우 Nagelkerke R^2 값이 0.201로 약 20.1%의 설명력을 나타내었으며 Hosmer&Lemeshow의 적합도 검정 값도 0.330으로 0.05보다 크게 나타나 해당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또한 절단값 0.500을 기준으로 63.7%의 예측의 정확도가 나타났다. 통제변수를 제외하고는 유의수준 0.05 기준 결혼기간과 18세 미만의 자녀유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결혼기간이 1단위 증가할수록 정서적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0.986배 낮아지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1)는 없는 경우(=0) 가정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0.821배 낮아진다는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반면, 물리적 폭력의 발생가능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경우 Nagelkerke R^2 값이 0.047로 약 4.7%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정서적 폭력의 가해여부가 종속변수로 설정되었을 때 보다 낮은 수치로 물리적 폭력의 경우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만으로는 폭력행위의 가능성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Hosmer&Lemeshow의 적합도 검정 값도 0.511로 0.05보다 크게 나타나 해당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또한 절단값 0.500을 기준으로 60.7%의 예측의 정확도가 나타났다. 통제변수를 제외하고 행위자의 소득수준, 취업여부, 교육수준과 결혼기간 변인이 물리적 폭력의 가해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소득이 1단위 높아질수록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0.918배 낮아지며, 취업을 안한 경우(=0)보다 한 경우(=1) 발생가능성이 0.719배 낮아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교육수준이 1단위 높을수록 폭력의 발생가능성이 0.873배 낮아지고, 결혼기간이 1단위 증가할수록 폭력의 발생가능성이 1.009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정서적 폭력의 발생가능성과의 차별점은 그 영향력이 반대(양(+))방향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해석과 설명을 낳을 수 있지만, 간접적이거나 부부관계에서 폭력의 발생양상이 처음부터 물리적 폭력일 가능성은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정서적 폭력에서부터 시작되어 폭력의 지속성과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단계별 물리적 폭력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초기 가정폭력 행위자의 인식과 피해자의 대응이 부부 폭력문제의 해결에 있어 결정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장 배우자폭력의 피해경험과 신고의사

제 1 절 연구설계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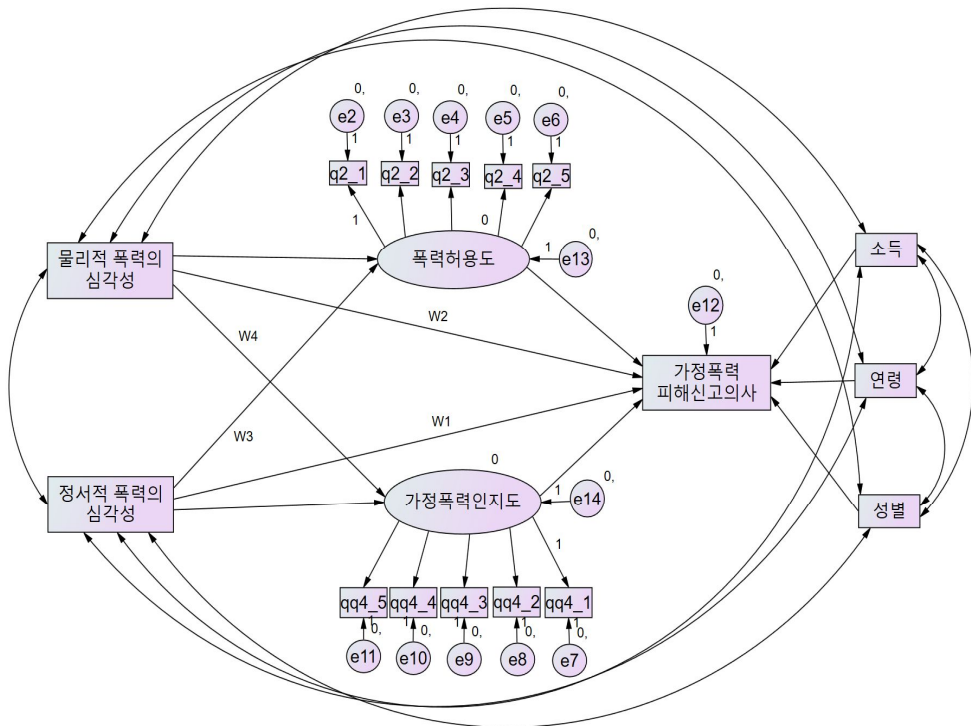
두 번째 연구모형의 궁극적 목적은 부부폭력 피해의 신고율이 극히 낮은 원인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과거의 부부폭력의 피해경험이 피해자의 신고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부부폭력의 유형별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부폭력의 피해경험과 일반적 신고의사 간의 관계를 설명해줄 수 있는 유의미한 피해자의 인식적 측면의 변수를 찾아내 인과관계의 설명력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독립변수로 설정된 과거 부부폭력의 피해경험이 현재의 피해자의 인식적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과거의 피해경험과 현재의 인식이 미래에 발생할 부부폭력 피해의 신고의사에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인 부부폭력 피해자의 신고의사와 관련된 인식과정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앞서 분석한 연구모형 1의 부부폭력의 가해사실이 발생한 가정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하고, 실제 경찰을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에 대한 신고여부와 그 횟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야 하지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3년 가정폭력실태조사의 경우, 부부폭력 행위자의 가해사실과 피해자의 피해사실의 경험에 대한 설문문항의 경우 응답률 자체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경찰‘신고’에 대한 응답의 경우 극히 적은 수의 표본만 존재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하여 연구모형2에서는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여 부부폭력의 발생과 심각성을 동시에 드러낼 수 있도록 독립변수를 구성하고, ‘만약 귀택에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경찰에 신고할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조건적(conditional)인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을 종속변수로 설정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나아가 부부폭력 피해 경험과 심각성, 피해에 대한 일반적 신고의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줄 수 있는 매개변수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부부폭력의 행위자에게 공통되게 나타나는 ‘폭력허용도’ 변수를 설정하여 피해자 측면의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가정폭력의 인지도’ 변수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 부부폭력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여겨진 만큼 피해신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구성된 연구모형(2)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피해자의 신고의사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2)



2. 분석방법: 구조방정식 모형

연구모형2에서는 부부폭력의 심각성과 신고의사 간의 관계와 폭력허용도와 가정폭력인지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성된 이론적 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조방정식 분석(SEM)을 사용하였다. 이론적으로 구성된 폭력허용도와 가정폭력인지도의 변수는 응답자의 인식이 개입되는 변수로 잠재변수(Latent variable)로 구성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수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조방정식 분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을 측정하기 위한 관측변수(Observed variable)를 설정한다. 둘째, 구성된 측정모형을 식별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한다. 셋째,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한 구조모형을 분석하는데, 이때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 M.I.) 값을 반영하여 수정모형을 도출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파악하여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모형의 직·간접효과를 측정한다. IBM SPSS 21.0과 AMOS 21.0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가설설정에 따른 모형의 전반적인 인과관계를 검정하였다.

3. 변수의 구성

1) 독립변수: 배우자폭력의 피해경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3년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 정의하는 부부폭력은 결혼 경험이 있는(동거포함) 남녀에게 발생한 정서적·신체적·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및 통제를 의미한다. 부부폭력의 발생여부와 그 경험한 피해의 정도(혹은 심각성)를 측정하기 위해 2013년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는 Straus의 CTS2(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1996)의 15문항과 WHO(2005)에서 제시하는 통제행위(Controlling

Behavior) 7문항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에서 활용한 부부폭력의 발생과 빈도를 측정할 설문문항을 기반으로 독립변수를 구성하였다¹³⁾.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부폭력의 유형분류 및 개별행위는 아래 표와 같다. 위 이 때, 행위의 경험(발생)여부는 조사시행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으로 한정하였고, 구체적으로 ‘지난 1년동안(2012년 7월~2013년 6월) 배우자는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라고 설문문항을 구성하였고 ‘통제’와 ‘방임’유형의 배우자 폭력의 경우 ‘없음’, ‘가끔’, ‘자주’, ‘매우 많이’로 응답유형을 구성하였다. 이를 제외하고 신체적·정서적·경제적폭력과 성학대의 경우는 지난 1년간 배우자가 조사대상자에게 한 행동들의 일반적 빈도보다는 ‘1회 ~ 20회 이상’으로 구체적 횟수로 응답유형을 구성하여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먼저 신체적 폭력 중에서 결측치가 크고 응답율이 낮은 다소 극단적인 경우인 중한 폭력과 상대적으로 경찰 및 기타 공공기관의 적극적 대응과 개입이 어려운 경제적 폭력을 제외한 뒤, 경한 신체적 폭력, 정서적 와 지속성 등을 통해 그 심각성을 측정하였다. 이때, 정서적 폭력의 경우 명칭은 정서적 폭력이지만 내용상 적극적 형사사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심할 경우 신체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물리적 폭력에 포함시켜 연구하였다.

이와 함께 본래 ‘방임’과 ‘통제’가 한 범주에 묶여 설문이 진행되었지만, ‘방임’ 역이 경찰신고와 1366 가정폭력 긴급전화보다는 가정폭력상담소 및 주변 지인들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통제’의 5가지 문항을 포함시켜 정서적(혹은 정신적) 폭력의 변수를 구

13) 다수의 연구에서 가정폭력의 정의 및 유형분류를 함에 있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Straus가 개발한 CTS(Conflict Tactics Scale)척도는 명칭대로 부부갈등 대처유형에 관한 척도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배우자간 발생하는 신체적 혹은 비신체적 폭력행위와 관련된 문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내·외 가정폭력 및 구타를 측정하는 많은 연구들에서 사용되고 있다. Straus가 1985년 척도를 처음 개발한 뒤 각각 1979년, 1996년 두 번에 걸친 개정을 통해 성적 폭력과 상해개념을 추가하여 2004년 이후부터 CTS2의 39문항 중 15문항이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손정영(1997)은 기혼남녀 318명을 대상으로 CTS2척도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 1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척도들에 대해 국내 부부폭력에 적용가능성이 있음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성하였다. 그리하여 부부폭력의 유형을 물리적(주로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으로 재분류하고 발생 빈도 및 횟수의 값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독립변수를 구성하였다.

2) 종속변수: 배우자폭력피해의 일반적 신고의사

연구모형 2의 종속변수와 관련하여 2013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 사용된 ‘배우자의 폭력행동이 있을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라고 묻은 설문문항을 활용할 경우 신고를 했다고 응답한 표본 수 자체가 매우 적으며 결측치가 많아 원활한 조사를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과거 피해경험이 장래 피해자의 신고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기에 ‘만약 귀댁에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경찰에 신고할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설문문항을 사용하여 배우자폭력피해의 일반적 신고의사를 측정하였다. 그리하여 신고할 의향이 없다(=0)와 신고할 의향이 있다(=1)로 종속변수를 측정·구성하였다

3) 매개변수

(1) 폭력허용도

폭력허용도(Violence tolerance)란 폭력에 대해 얼마나 허용적으로 생각하는지의 정도로 정의된다(김재엽&이효정&송아영, 2007).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진 주된 특성 중 하나이며 배우자폭력의 발생과 심각성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주요 변인이 된다(Stith&Farley, 1993).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와 폭력행동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폭력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가진 남편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아내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영란, 2012). 그러나 폭력허용도는 주로 가해자 남성의 입장에서만 연구되어 피해 여성의 폭력에 대한

태도는 고려되지 않은 한계를 보인다.

조사대상자의 폭력에 대한 태도(폭력허용도) 총 5가지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결과가 좋다면 폭력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q2_1)’,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q2_2)’, ‘많은 경우 폭력이 일처리를 쉽게 만든다(q2_3)’, ‘싸움을 먼저 걸어온 사람을 때리는 것은 나쁘지 않다(q2_4)’, ‘학교나 군대에서 선배가 후배를 때리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q2_5)’이다. 폭력에 대한 태도(5개 항목)에 대한 평균은 1.73점(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허용적 태도를 지님)이었고, 남성은 1.81점으로 여성 1.65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문항 중에서도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항목에 대해서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21.9%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남성 26.2%, 여성 17.7%),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정폭력인지도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은 남편이 아내(혹은 아내가 남편)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계속적이며 반복적인 폭력인 배우자폭력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판별할 수 있는 인식정도로 정의한다(윤영아, 2005).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Waler(1879)의 아내폭력에 대한 잘못된 믿음(myth)과 Ewing과 Aubrey(1987)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고 척도를 개발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졌다(손정영, 2000; 윤영아, 2005)

조사대상자의 부부간 행동에 대한 가정폭력 인지정도(가정폭력인지·인식도) 또한 5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측정되었다. 그러나 4점 척도로 구성된 폭력허용도의 응답유형과는 달리 가정폭력인지도의 경우 특정 행동을 설명한 뒤 이를 ‘가정폭력이다’, ‘가정폭력이 아니다’ 중의 답변을 선택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행동내용은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qq4_1)’, ‘배우자에게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qq4_2)’,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qq4_3)',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고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qq4_4)', '배우자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qq4_5)' 로 설정되어있다.

부부간 행동에 대한 가정폭력성 인식을 알아본 결과, '배우자에게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가정폭력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이 95.1%로 가장 높았다. 이후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 86.3%,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배우자의 동의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82.6%, '배우자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82.4%로 나타나 각각에 대해 10명 중 8명은 가정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고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률은 69.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가정폭력 인식률은 모든 문항에서 남성의 인식률이 여성의 인식률보다 낮게 나타났다.

4) 통제변수

연구모형2의 통제변수로는 부부폭력 피해신고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서, 독립변수들과도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를 설정하였다. '연령'은 응답자의 만 나이를 측정한 연속변수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평균나이는 52.2세로 나타났다. 성별을 측정한 변수는 남성인 경우 낮게(남성=1), 여성인 경우 높게(여성=0)로 코딩하였으며, 응답대상자의 45.2%는 남성, 54.8%는 여성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응답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측정한 변수이다. 해당 변수는 2013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의 분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즉, 소득이 없는 경우를 가장 낮게 코딩하고(소득=1), 지난 1년간 월평균 가구소득100만원 미만(소득=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소득=3) 등 100만원 단위로 한 단계씩 높게 코딩하여 500만원 이상(소득=6)로 코딩하였다. 이상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의 독립변수로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앞서 살펴본 Black의 이론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거나 학력이 높은 사람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계층(Stratification)적으로 또는 문

화적 측면에서 범을 이용·동원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연구결과에서도 유의미한 표준화 계수가 도출된 통제변수도 있었다.

제 2 절 배우자폭력의 피해경험과 신고의사 간의 관계

1.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인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문항 및 이를 묶은 상위개념은 2004년 이래 실시되어 온 5차례의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서 활용하였음 물론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었으므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폭력허용도(Cronbach's $\alpha=0.841$)와 가정폭력인지도(Cronbach's $\alpha=0.739$)변수는 잠재변수(Unobserved variable)로 각 개념을 구성하는 내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복수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두 변수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Chai-square(χ^2) 값 550.013(df=34), p값 0.000으로 나타났으며, 표준적합지수(NFI: normed fit index)값 0.954, 증분적합지수(IFI: incremental fit index)값 0.957, 비교적합지수(CFI: comparative fit index)값 0.957, 근사 오차평균자승이중근(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값 0.062 이었다. <표>는 각 변수와 관측변수 간 유의성 검증결과를 보여주는데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모형 2 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 변수	→	관측변수 (문항번호)	비표준화	표준화	S.E.	C.R.	AVE	개념신뢰도
폭력허용도	→	q2_5	1.000	.702	—	—	0.69150	0.91789
폭력허용도	→	q2_4	1.092***	.676	.029	37.638		
폭력허용도	→	q2_3	1.184***	.758	.029	41.516		
폭력허용도	→	q2_2	1.353***	.773	.032	42.139		
폭력허용도	→	q2_1	1.088***	.706	.028	39.118		
가정폭력인지도	→	qq4_5	1.000	.710	—	—	0.83078	0.95998
가정폭력인지도	→	qq4_4	1.147***	.684	.035	33.171		
가정폭력인지도	→	qq4_3	.865***	.643	.027	31.940		
가정폭력인지도	→	qq4_2	.376***	.464	.015	24.419		
가정폭력인지도	→	qq4_1	.667***	.538	.024	27.748		

또한 요인별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또한 폭력허용도 0.918 가정폭력인지도 0.960 으로 높게 나타나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2. 연구모형 검증

1) 경로분석(인과분석)

앞서 설정한 연구가설과 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에 모수 추정을 위한 최적화된 매개변수 생상을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최대우도법은 표본의 크기가 큰 자료를 분석하는 경우에 정규분포를 가

정하므로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배병렬, 2011). <표>는 연구 모형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연구모형에 대한 검증결과 χ^2 값 1033.260(df=92), p값 0.00, 증분적합지수인 IFI값 0.934, NFI값 0.929, CFI값 0.934 이었고, 절대적합지수인 RMSEA는 0.051로 수용가능한 기준을 충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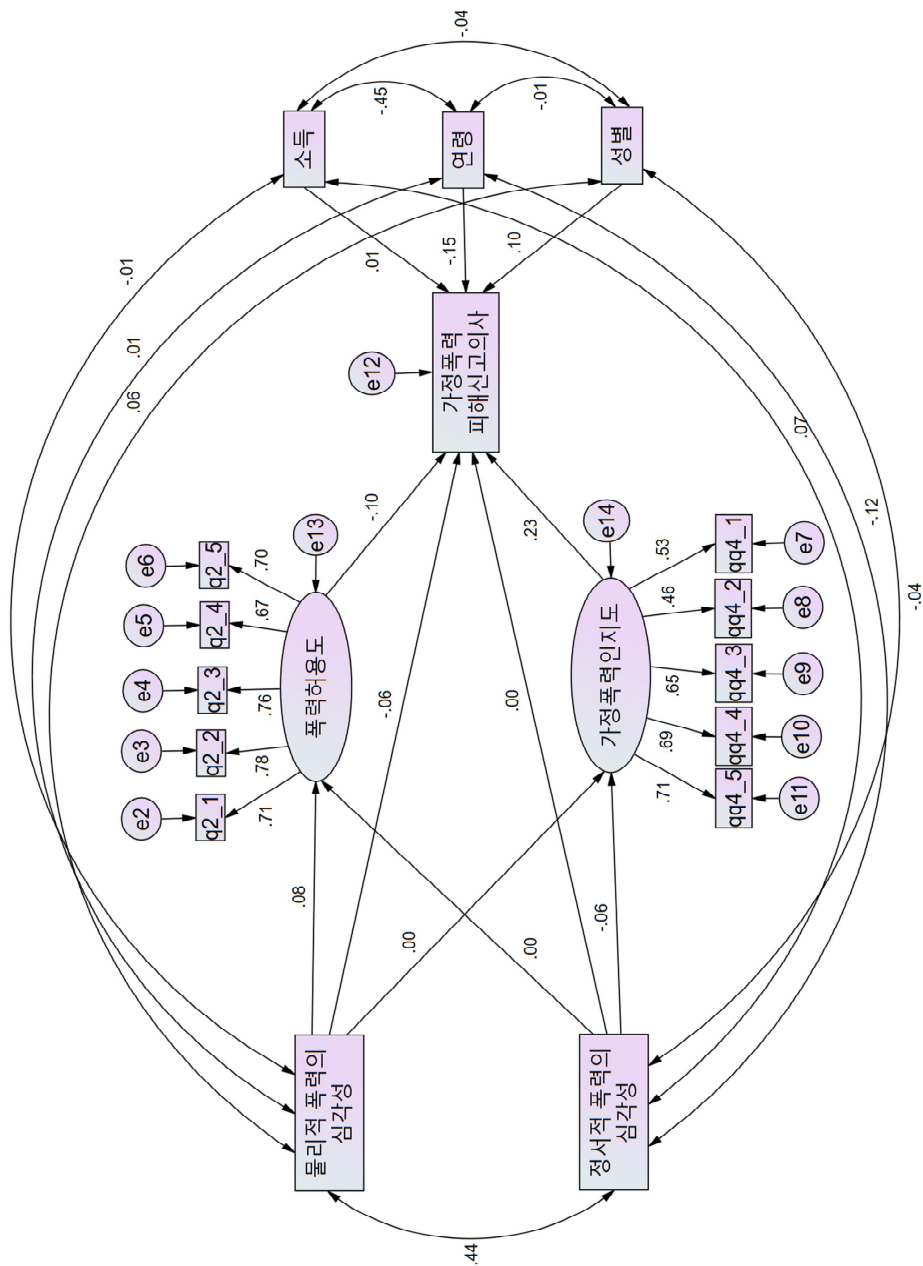
[표 7] 모형 2 의 경로분석 결과

가설	경로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표준 오차	t값	p값	채택 여부
2-1-1	물리적 폭력→신고의사	-0.153	-0.060	.042	-3.605	0.000	채택
2-1-2	물리적 폭력→폭력허용도	0.204	0.081	.047	4.357	0.000	채택
2-1-3	폭력허용도→신고의사	-0.970	-0.096	.017	-5.742	0.000	채택
2-2-1	정서적 폭력→신고의사	0.000	0.000	-	-	-	(기각)
2-2-2	정서적 폭력→가정폭력인지도	-0.069	-0.064	.021	-3.282	0.001	채택
2-2-3	가정폭력인지도→신고의사	0.615	0.226	.051	12.150	0.000	채택

분석결과 일반적 범죄피해와 신고와는 달리 과거(지난 1년간) 경험한 물리적 폭력이 심각할수록 피해자의 일반적 신고의향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폭력의 경험은 그 자체만으로는 일반적 신고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의 부(-)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폭력허용도의 변수를 추가한 결과, 연구모형의 설명력이 높아지고 폭력허용도의 부분매개효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정서적 폭력의 경우 신고의사와의 직접적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과연 본인이 겪은 피해가 부부폭력에 해당하는지를 인식하는 정도인 가정폭력인지도의 매개변수를 추가한 결과 가정폭력인지도는 정서적 폭력과 일반적 신고의사에서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냄에 따라 완전매개효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인 영향력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모형 2의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2) 매개효과 검증

각 유형별 가정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일반적 피해신고의 의사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해주는 매개변수(Intervening Variable)를 설정하고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SPSS프로그램에서는 매개회귀분석을 Amos의 경로모형에서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검증하며 이를 통해 매개효과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경우 그 자체로 민감한 속성을 지니므로 원자료에 결측값이 다른 조사자료에 비해 많이 존재하고 기술적으로 부트스트래핑을 실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벨검정(Sobel Test)을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소벨검정은 소표본 보다는 큰 표본일 때 보다 정확한 추정값을 보고하고, Sobel, Aroian, 그리고 Goodman test의 결과값들이 유사해지는데, 본 연구의 표본크기(Sample size=3949)는 소벨검정을 진행하고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소벨검증 결과 신체적·정서적 폭력 모두 각각의 z 통계량이 $-1.96(95\% \text{신뢰수준})$ 보다 높으므로 각각의 경로에 폭력허용도, 가정폭력인지도의 일반적 신고의사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구체적 결과 값은 <표>에서 제시한다.

[표 8] 모형 2 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Indirect Path	간접효과	z 통계량	p값
물리적 폭력	-0.1978	-3.455	0.000
정서적 폭력	-0.042	-3.17	0.000

제 5 장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피해신고율과 높은 재범률이 나타나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다. 일반적 범죄피해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신고의사는 높아지는 반면, 배우자폭력의 경우 과거 경험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일반적 신고의사는 낮아지는 관계를 보인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을 직접 발생시킨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우선적으로 밝힌 후, 학습된 무기력 이론을 활용하여 과거의 피해경험과 일반적 가정폭력 피해 신고의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학습된 무기력 이론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력을 통제할 수 없고, 이로부터 벗어날만한 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인식하면서 점차 무기력한 피해자가 되어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동기를 잃게 되고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게 된다고 설명한다(Walker, 1979). 가정폭력을 사법(司法)적 관점에 따라 한 건의 범죄발생에 불과한 것이라 단정 지으면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갈등양상이 사(私)적 생활관계를 넘어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른 현상으로서(김재민, 2006), 사회과학적으로 본다면 권력과 자원이 불균등하게 분포된 친숙한 행위자 사이에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폭력인 것이다¹⁴⁾. 더군다나 인간의 학습과정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가정에서 갈등해결의 수단으로서 폭력이 사용되며, 행위자뿐만 아니라 자녀 등 가족구성원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¹⁵⁾ 이를 조기에 예방·차단하려는 노력이

14) 조은희, “40년 넘게 가정폭력 휘두른 前남편 청부살해…징역 15년 확정”, 2017.5.12., 뉴스한국.

김승모, “만취해 ‘죽이겠다’ 위협한 전 남편 살해한 여성 징역 2년 확정”, 2016.9.4., 뉴시스

15) 이경은·장덕희(2000)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는 자긍심이 낮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자살이나 자해충동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하

필요하다.

발생한 배우자폭력을 조기에 해결하고 폭력의 순환고리를 끊는 방법 중 하나는 경찰을 비롯한 대응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타 범죄 혹은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국내의 배우자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 암수(暗數)가 많아 그 실태파악과 효과적 대응을 어렵기 하고 있다. 즉,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현황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내·외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가해남성, 피해아내를 대상으로 병리적·심리적 원인에 중점을 두고 개인적 차원으로 논의에서 중점을 두고 있다(김미애, 2011). 심리학, 사회복지학의 맥락에서 이뤄진 행위자의 성격 특성에 대한 연구 역시 가정폭력의 발생단계에 국한되어 대해 미시적이고 단편적인 논의 밖에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폭력에 초점을 맞추어 우선적으로 배우자폭력의 행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경험한 피해자들의 신고의사와 피해경험 사이의 관계와 이를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매개요인을 찾아 분석하였다.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3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해 실시된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 결혼기간이 짧은 경우 정서적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의심하였다.’ 등의 행위 유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배우자폭력이 초기에는 정서적 폭력 혹은 경미한 물리적(혹은 신체적) 폭력에서 시작하여 점점 더 강도 짙은 폭력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물리적 폭력의 경우 소득과 교육수준이 낮고 미취업상태일수록, 그리고 결혼기간이 길수록 행위자의 가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결혼기간’ 변인은 두 유형에서 배우자폭력의 발생과 관련하여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배우자폭력의 반복과 심화과정을 간접적이거나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배우자폭력의 피해경험과 일반적 신고의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구조방

였으며, 조준범·조남홍(2011)의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학교폭력의 정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정식 모형을 분석한 결과, 경험한 배우자폭력의 피해정도가 심각할수록 장애의 발생한 피해에 대한 신고의사는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음(-)의 관계가 나타나는 원인을 밝히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물리적 폭력 유형 각각 가정폭력인지도와 폭력허용도 변수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과거 경험한 정서적 폭력이 심할수록 피해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지도는 약화되고, 특정 행위가 배우자폭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인지도가 약화됨에 따라 신고의사 역시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폭력의 경우, 경험한 해당 유형의 폭력이 심각할수록 피해자의 폭력에 대한 허용(許容)적 태도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력에 대한 용인(容認)적 태도를 얻게 됨에 따라 피해에 대한 신고의사는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험한 피해가 가정폭력임을 인지하고,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폭력피해에 대한 신고의사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가정에서 발생한 배우자폭력에 대한 사회적 개입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일수록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실증적 분석결과를 통해 신고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폭력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 측면의 일방향적인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직접 배우자폭력을 발생시킨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밝혀냄과 동시에, 이를 겪은 피해자 관점에서 폭력이 행해짐에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원인과 그 과정을 추적했다는 점이다. 둘째, 공식기관에 의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단순한 신고 횟수와 확률이 아닌 피해자의 신고의사를 종속변수로 설정함에 따라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경험적 측면을 연구에 포함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배우자폭력에 대한 사후적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배우자폭력의 초기 단계부터 그 대응까지의 과정 전반을 연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연구 결과, 배우자폭력의 발생과 피해신고에 대한 양자의 연구에서 정서적 폭력과 물리적 폭력 유형 각각에서 유의미한 변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정책적 대응 또한 분리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배우자폭력의 속성을 반영하여 상습적 부부폭력 행위자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서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 충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폭력의 유형별 사례관리(Case Management)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¹⁶⁾. 끝으로, 경찰의 신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공식기관에 대한 신고율 전반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형별 배우자 폭력의 발생과 피해신고의사에 대한 영향요인을 밝힘으로서 복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지만, 여전히 후속연구에서 보완해야할 점이 남아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 먼저,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분석자료로 활용함에 따라 배우자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의 신고의사에 관련된 변수를 개발하여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부부폭력 행위자의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밝힘에 있어 개인적 수준의 변수와 결혼상태에 대한 단편적 정보만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실태조사의 문항구성이 개선되고, 더불어 ‘범죄피해조사’의 맥락에서 설문조사가 진행된다면 더욱 설명력 높은 다층적 변수개발과 연구모형설정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16) 실제로 영국경찰은 위험평가모델을 활용하여 가정폭력의 재범이나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전산화시켜 체계화 하고 있다. 한국경찰의 경우에도 가정폭력 범죄신고 및 고소사건 등과 같이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별도의 전문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훈방조치 된 경우라도 기록 유지를 함으로써 향후 가해자의 가정폭력범죄 전력 등을 현장출동 시 경찰관이 미리 확인하여 인지함으로써 긴급입시조치와 같은 효과적인 초동조치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김상운, 2014)

참고문헌

- 강지현. (2015). 폭력과 절도의 경찰신고 결정요인 분석. 형사정책연구, 26(2), 241-265.
- 김미애. (2010). 가정폭력 유발요인과 폭력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조절변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587-611.
- 김미애. (2011). 가정폭력 유발원인의 척도개발 연구. 지역사회연구, 19(2), 187-209.
- 김병준. (2002).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보, 4(단일호), 223-245.
- 김상운. (2014). 경찰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10(4), 1-23.
- 김상운. (2014). 외국경찰의 가정폭력 대응 비교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1(3), 67-92.
- 김수율. (2006). 가족폭력의 실태와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아내 폭력을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재민. (2006). 가정폭력에의 효과적 위기개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 연구. 경찰학연구, 6(3), 9-35.
- 김재민. (2013).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과 피해자보호. 경찰법연구, 11(1).
- 김재엽. (1998). 한국 가정폭력 실태와 사회계층 변인과의 관계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5, 133 - 155.
- 김재엽, 이호정, 송아영. (2007). 가정폭력 경험이 남자 청소년의 성폭력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7, 27 - 52.
- 김해경, 박찬혁, & 정의롭. (2015).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효율적 대처방안. 사회과학연구, 22(3), 157-186.
- 노성훈. (2012). 이민자지위와 범죄심각성이 피해신고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285-317.
- 노성훈. (2016). 가정폭력의 지리학. 형사정책연구, 27(4), 169-201.
- 박영란. (2007).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 피해자의 욕구와 피해자 보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23(3), 189 - 214.
- 송윤아. (2014). 지역사회 특성이 범죄피해 신고결정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25(4), 415-444.
- 손정영. (1997). 갈등대처유형척도 (CTS2) 의 한국부부에 대한 타당성

- 연구-남편의 갈등대처유형 및 아내학대행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 51-87.
- 심영희, & 김혜선. (2001). 아내 구타자의 폭력과 통제 양식에 관한 연구. 페미니즘 연구, (1), 181-221.
-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2010). 「가정폭력실태조사」
- 윤영아(2005). 아내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 및 개입태도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희관. (2004).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와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8(단일호), 73-105.
- 이경은, & 장덕희. (2000).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의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7(1), 95-123.
- 이훈, 노성훈, & 조준택. (2016). 가정폭력사건 경찰신고의향 영향요인-서울특별시 가정폭력 빈발지역의 지역사회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0(1), 3-38.
- 조은경, & 허선주. (2013). 일반 논문: 경찰의 현장출동단계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개발 및 활용 방안. 피해자학연구, 21(2), 87-110.
- 조준범, & 조남홍. (2011).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청소년학연구, 18(4), 75-102.
- 탁종연. (2010). 범죄피해자의 신고 결정요인 분석. 형사정책연구, 53-75.
- 탁종연, & 노성훈. (2009). 인종이 범죄피해 신고에 미치는 영향: 동양계 미국인의 강도와 폭행피해 신고경향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8(1), 41-70.
- 한영란. (2012).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여성의 폭력에 대한 신념 • 태도와 우울.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3), 532 - 54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가정폭력실태조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가정폭력실태조사」
- 허민숙. (2010). 가정폭력에 대한 젠더통합적 접근: [가정폭력 실태조사] 비판을 중심으로. 가족과문화, 25(2), 62 - 89.
- 허민숙. (2012). “폭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페미니즘 연구, 12(2), 69 - 103.

- Bandura, A. (1979). The social learning perspective: Mechanisms of aggression.
- Baumer, E. P. (2002). Neighborhood disadvantage and police notification by victims of violence. *Criminology*, 40(3), 579-616.
- Baumer, E. P., & Lauritsen, J. L. (2010). Reporting crime to the police, 1973 - 2005: a multivariate analysis of long term trends in the National Crime Survey (NCS) and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NCVS). *Criminology*, 48(1), 131-185.
- Baumgartner, M. P. (1993). Violent networks: The origin and management of domestic conflict.
- Belsky, J. (1980). Child maltreatment: An ecological integration. *American Psychologist*, 35(4), 320 - 335.
- Berrios, D. C., & Grady, D. (1991). Domestic violence. Risk factors and outcomes. *Western Journal of Medicine*, 155(2), 133.
- Black, D. J. (1971). The social organization of arrest. *Stanford Law Review*, 1087-1111.
- Black, D. J. (1993). *The social structure of right and wrong* (rev. ed). San Diego: Academic Press. San Diego: Academic Press.
- Black, D. (2010). *The behavior of law*. Emerald Group Publishing.
- Capaldi, D. M., Knoble, N. B., Shortt, J. W., & Kim, H. K. (2012). A systematic review of risk factor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Partner abuse*, 3(2), 231-280.
- Dobash, R. E., & Dobash, R. (1979). Violence against wives: A case against the patriarchy (pp. 179-206). New York: Free Press.
- Ewing, C. P., & Aubrey, M. (1987). Battered woman and public opinion: Some realities about the myths. *Journal of Family Violence*, 2(3), 257-264.
- Franklin, C. A., & Menaker, T. A. (2014). Feminism, Status Inconsistency, and Women's Intimate Partner Victimization in Heterosexual Relationships. *Violence Against Women*, 20(7), 825 - 845.
- Gelles, R. J., & Straus, M. A. (1979). Determinants of violence in the family: Toward a theoretical integration.

- Gelles, R. (1993). Through a sociological lens: Social structure and family violence.
- Gondolf, E. W., & Fisher, E. R. (1988). Battered women as survivors: An alternative to treating learned helplessness. Lexington Books/DC Heath and Com.
- Goudriaan, H., Wittebrood, K., & Nieuwbeerta, P. (2005). Neighbourhood Characteristics and Reporting Crime: Effects of Social Cohesion, Confidence in Police Effectiveness and Socio-Economic Disadvantage 1.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6(4), 719-742.
- Goudriaan, H. (2006). Reporting crime: Effects of social context on the decision of victims to notify the police. Heike Goudriaan.
- Goudriaan, H., & Nieuwbeerta, P. (2007). Contextual determinants of juveniles' willingness to report crimes. *Journal of Experimental Criminology*, 3(2), 89-111.
- Grynbaum, M., Biderman, A., Levy, A., & Petasne-Weinstock, S. (2001). Domestic violence: prevalence among women in a primary care center--a pilot study. *The Israel Medical Association journal: IMAJ*, 3(12), 907-910.
- Harries, K., & Kovandzic, E. (1999). Persistence, Intensity, and Areal Extent of Violence Against Women Baltimore City, 1992 to 1995. *Violence Against Women*, 5(7), 813-828.
- Henning, K. R., & Klesges, L. M. (2002). Utilization of counseling and supportive services by female victims of domestic abuse. *Violence and victims*, 17(5), 623-636.
- Hudson, W. W., & McIntosh, S. R. (1981). The assessment of spouse abuse: Two quantifiable dimens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873-888.
- Hunnicut, G. (2009). Varieties of Patriarchy and Violence Against Women Resurrecting "Patriarchy" as a Theoretical Tool. *Violence Against Women*, 15(5), 553 - 573.
- Johnson, S. D., & Bowers, K. J. (2004). The burglary as clue to the future: The beginnings of prospective hot-spotting.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1(2), 237-255.

- Kaufman, J., & Zigler, E. (1987). Do abused children become abusive par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2), 186.
- Klinger, D. A. (1995). Policing spousal assault.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2(3), 308-324.
- Kuijpers, K. F., van der Knaap, L. M., & Winkel, F. W. (2012). Risk of revictimization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The role of attachment, anger and violent behavior of the victim. *Journal of family violence*, 27(1), 33-44.
- Lally, W., & DeMaris, A. (2012). Gender and Relational-Distance Effects in Arrests for Domestic Violence. *Crime & Delinquency*, 58(1), 103 - 123.
- Lehrman, F. L. (1996). *Domestic violence practice and procedure*. Deerfield, IL: Clark, Boardman, & Callaghan.
- Maffli, E., & Zumbunn, A. (2003). Alcohol and domestic violence in a sample of Incidents reported to the police of Zurich City. *Substance use & misuse*, 38(7), 881-893.
- Mehrotra, M. (1999). The Social Construction of Wife Abuse Experiences of Asian Indian Women in the United States. *Violence Against Women*, 5(6), 619 - 640.
- Michalski, J. H. (2004). Making Sociological Sense Out of Trends in Intimate Partner Violence The Social Structure of. *Violence Against Women*, 10(6), 652 - 675.
- Murphy, C. M., & Cascardi, M. (1993). Psychological aggression and abuse in marriage. *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treatment*, 1, 86-112.
- Richard J. Gelles. (1985). Family Violence. *Annual Review of Sociology*, 11, 347 - 367.
- Shaw, C. R., & McKay, H. D. (1942).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 Sherman, L. W., & Berk, R. A. (1984). The specific deterrent effects of arrest for domestic assaul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61-272.
- Skogan, W. G. (1984). Reporting crimes to the police: The status of world research.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1(2), 113-137.

- Sokoloff, N. J., & Dupont, I. (2005). Domestic Violence at the Intersections of Race, Class, and Gender Challenges and Contributions to Understanding Violence Against Marginalized Women in Diverse Communities. *Violence Against Women*, 11(1), 38 - 64.
- Stith, S., & Farley, S. (1993). A predictive model of male spouse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8(2), 183-193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5-88.
- Straus, M. A. (1980). Victims and aggressors in marital violenc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3(5), 681-704.
- Straus, M. (2005). Reflections on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Classic papers*, 195-197.
- Straus, M. A., Gelles, R. J., & Smith, C. (1990).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Risk factors and adaptations to violence in 8,145 families (pp.29-47).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Street, A. E., & Arias, I. (2001). Psychological abus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battered women: Examining the roles of shame and guilt. *Violence and victims*, 16(1), 65-78.
- Tseloni, A., & Pease, K. (2003). Repeat Personal Victimization. 'Boosts' or 'Flag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3(1), 196-212.
- Walker, L. E. (1977). Battered women and learned helplessness. *Victimology*.
- Walker, L. E. (1980). *The battered woman*. New York: Harper & Row.
- Wauchope, B. A. (1988). Help-Seeking Decisions of Battered Women: A Test of Learned Helplessness and Two Stress Theories.
- Yllo, K. A. (2005). Through a feminist lens. Current controversies in family violence.

Abstract

A Study on Occurrence of Domestic Violence and Willingness of Victims to Call Police

Soo jin Seong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has been about 20 years since the domestic violence was regarded as the social problem and the enactment of fundamental law about responding domestic violence in South Korea.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also included the 'Domestic Violence' as the agenda of 'Four major Hazards' in our society. However, despite of many efforts to solve domestic violence, the reporting rate of domestic violence stays on extremely low level and recidivism rates have increased during recent years. Most of all, there was recursive and persistent domestic violence behind many recent cases of marital homicides.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assailants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victimiza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willingness of victims to call police by using 2013 Korean National Factual Survey of Domestic Violence. The results indicate that short marriage

duration, low income, status of unemployment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occurrence of emotional and physical violence. This study also found that if the victim experienced serious spouse violence, the willingness of victims to call police decreases. In the case of emotional spouse violence, seriousness of damage lower the awareness of domestic violence and it leads to less likelihood of reporting to police. In the case of physical spouse violence, seriousness of damage raises victims' the acceptability of violence and it leads to less likelihood of reporting to police.

Keywords : Domestic Violence, Willingness to Report Crime, Korean National Factual Survey of Domestic Violence, Structural Equation Model

Student Number : 2015-20196